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에너지 취약계층 겨울나기에 힘 보태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모두의 경제포럼' 공동대표들은 3일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하는 2022 신년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서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박은(주리음종합건설 대표)·양승보(주익솔 대표) 모두의 경제포럼 공동대표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주시 서원신동 인근의 2가구에 연탄을 배달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연이은 한파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청년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은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기부가 줄면서 연탄 수급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하고자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연탄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청년들의 열정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란다”며 “이런



따뜻한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외되는 지역만이 없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의 경제포럼'은 지역 청년CEO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더 늦기 전에 잘나가는 전주를 위해 지역경제가 지속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1월 18일 꾸러졌으며, 조 전 경진위원장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우범기 전 부지사 서학동 예술마을서 연탄봉사 · 새해 군경모지 참배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는 2021년 마지막 날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연탄 봉사를 위해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학동 예술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2022년 임인년 새해 낙수정 군경모지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했다.

우 전 부지사는 화가·공예작가·설치미술작가 등의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예술인 마을에 연탄을 배달하면서 “전주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더 이상 연탄 봉사활동을 안 해도 되는 미래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탄봉사보다는 보다 나은, 새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낙수정 군경모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우 전 부지사는 “국립현충원, 국립518민주묘지와 같은 전북의 혼(魂)을 상징하는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주시민, 더 나아가 전북도민 모두에게 일상에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변역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 새해, 전주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새해에도 이웃사랑 온도 올라가

남원시는 임인년 새해에도 '희망2022 나눔캠페인'의 기부 온도가 시민들의 열된 참여로 힘차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랑의 온도 가열에는 백두엔지니어링(대표 박진영)에서 2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남원시 보건소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중 일부 15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남원시 휴먼소셜회(회장 김병기)는 50만원을 전달했으며, 익명의 두 기업에서 각각 500만원, 300만원을 기탁하고, 청담마녀 마용실에서는 손님들의 앞머리 컷트비용 1,000원씩을 돼지저금통에 모은 16만원을 QR코드를 통해 기부했다.

QR코드 기부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모바일 결제창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액기부도 가능하며, QR코드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김재하 남원시 희망복지지원계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 동참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행정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뢰받고 사랑받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북농협, 국립임실호국원서 임인년 새해 결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3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참배를 실시하고 2022년 경영목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정재호 본부장을 비롯한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이진산 농협임실군지부장, 간부직원 등 20여 명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선열의 희생을 추모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유통 혁신 ▲지자체협력 강화 ▲ESG경영 실천 ▲농·축협 경쟁력 제고 ▲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핵심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전북농협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도민과 농업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군산 삼학동 5동 주민일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군산시 삼학동은 5동(통장 김미숙) 주민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180만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다른 해보다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 돕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김미숙 5동장은 “삼학동 5동은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를 다독이고 감싸 안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주민들이 많아 마을이 언제나 훈훈하고 정이 넘친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문숙 삼학동장은 “겨울 한파와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기부 실천에 감사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삼학동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